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5, pp. 291-301, 2021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1.12.5.291

특수체육에서 질적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질의 평가

이서희
중앙대학교 체육교육대학 강사

Qualitative Research: The Theory to the Practice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Seo Hee Lee
Instructor, The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을 위해 질적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 학적 이론과 방법의 틀을 제시하고, 특수체육에서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 질적 연구의 기본이 되는 인식론의 이해를 설명하였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과 타당성 확보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체육 영역에서 활용되는 질적 연구 질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 내외 특수체육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계속 강조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을 관찰, 이해, 분석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이해와 연구 방법론의 습득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적인 질적 연구의 질의 평가로 좀 더 깊이 있는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 특수체육 분야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질적 연구, 특수체육에서 연구의 중요성, 질적 연구의 중요성, 질적 연구와 특수체육, 특수체육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paper were to provide the basic segments of qualitative research to assist the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and to provide implications of indicators (i.e., criteria) to determine the rigor of the qualitative research in the area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APE). This paper was divided into five sub-categories to facilitate understanding the qualitative research, which were (a) the epistemological stances, (b) the data collection methods (c) the data analysis (d) the trustworthiness and (e) the implications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Taxonomy (APAT) in APE. Qualitative researchers deliver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experience and knowledge by means of text rather than number so their explanations and understanding tend be subjective and distinct from otherwise interpretaotherwise (Crotty, 1998; Pitney& Parker, 2009). Examining the rigor of qualitative research is therefore concerned due to the complexity of understanding of reality (Goodwin 2020; Zitomer & Goodwin, 2014). In the meantime the roles of qualitative research have been highlighted in educational research including the area of APE because qualitative research enables researchers to examine different voices of school members (e.g.,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parents teachers Goodwin ,2020; Hodge et al., 2019; Zitomer & Goodwin, 2014).

Key Words : Qualitative research, The role of research in APE, The role of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n APE, Adapted Physical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Seo Hee Lee(apejanet@gmail.com)
Received February 28, 2021 Revised March 24, 2021
Accepted May 20,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모든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기에 첫 번째 단계는 주요한 가정 즉, 기본 신념의 설정이다(Fraenkel et al. 2012)[1].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상황과 개개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 설계와 연구 질문을 구축하는 데 기본이 된다.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positivism)를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그 이론은 실제적인 검증을 기반을 둔 온톨로지(ontology)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는 원인과 결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현상은 측정할 수 있게 설정해야 하고 그 연구의 기반을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Fraenkel et al. 2012; Petty et al. 2012a)[1,2]. 실증주의의 연구자들은 연구의 대상과 사건들은 체계적인 수치 및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Petty et al. 2012a)[2].

비록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건 그리고 개개인을 숫자 그리고 통계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되고 측정할 수는 없다(Pitney & Parker, 2009)[3]. 그래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제기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인식론(epistemology)을 기반으로 두었으며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 그리고 신념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과 현실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Glesne & Pushkin, 1992)[4]. 인식론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Hodge et al. 2019; Petty et al. 2012a)[2,5]. 질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환경의 조작과 제어를 하지 않고 그 현상학적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Pitney & Parker, 2009)[3]. 따라서, 질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기본적인 연구 철학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을 관찰, 이해, 분석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Crotty, 1998; Glesne & Peshkin, 1992)[4,7]. 하지만 연구자들의 견해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Crotty, 1998)[7].

교육학 전반에서 측정할 수 있고 계량적인 연구인 양적 연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 파악에 목적을 둔 질적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교육 정책을 개선 그리고 개발하고 실제적인 현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수체육도 교육 분야의 한 영역으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질적 연구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과 연구 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오광진, 2019; Zitomer & Goodwin, 2014)[8,9]. 기존의 많은 질적 연구들이 정확한 연구 패러다임(paradigm)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유석 &노형규, 2009)[10].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비교하면 철학적 이론의 적용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초보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역할이 양적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연구자들은 학문 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론의 정확한 이해와 습득이 요구된다 (Hodge et al., 2019)[5]. 질적 연구는 특수체육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교육 관계자들의 경험을 직접 이해하고 서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의 영역과 유형이 다양해지어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은 특수체육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오광진, 2019; Goodwin, 2020)[8,11].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을 위해 질적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 학적 이론과 분석 방법의 틀을 제시하고, 특수체육에서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질적 연구에서의 인식론(Epistemology)의 이해

질적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Crotty, 1998)[7]. 인식론적 관점은 많은 영역으로 나뉘고 해석되며, 설명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해석 주의(interpretivism), 해석학 (hermeneutics) 그리고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가 있다. 질적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식론의 이해는 필요하다(Schwandt, 2000)[12].

해석 주의(interpretivism)는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은 단순히 측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은 단순히 원인 그리고 결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연구자는 그 행동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Altheide, 1987)[6]. 사람은 문화와 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그러한 경험들은 그들의 행동과 관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Petty et al., 2012a; Schwandt, 2000)[2,12]. 예를 들면, 같은 장애를 가졌지만 다른 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들의 행동과 관점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행동과 관점을 분석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환경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이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Schwandt, 2000)[12].

해석학(Hermeneutics)이란 해석의 이론과 방법론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Patton, 1990)[13]. 특히 종교 서적을 해석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석학은 문맥과 그것의 유래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목적이다(Patton, 1990)[13]. 해석학은 인간의 행동, 의도 및 경험을 이해하기 이전에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해석에는 역사, 예술, 문학, 언어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변형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은 언어, 몸짓, 관습, 전통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내재하여 있고 그것들의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다. 해석학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장애 학생들의 일기를 보면 그 학생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학생의 사회적 역할도 분석해 볼 수가 있다(Graneheim, 2004)[14].

사회적 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onism)는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행동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관점이다(Schwandt, 2012)[12].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연구는 개개인의 이해성도 필요하지만, 그 개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떠한 관점을 성립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시된다. 개개인의 행동 양식과 관점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립되어가는 경우가 많다(Glesne & Peshkin, 1992)[4]. 질적 연구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주목해야 한다. 아시아계 학부모와 백인 학부모는 특수체육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경험과 관점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계 학부모들은 동양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이 자식들의 양육 방법에도 기본이 될 것이다. 또한, 특수체육 교사들과 또는 다른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동양 문화는 아시아계 부모들의 행동과 언어표현방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특수체육 영역의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인터뷰(interview), 직접 관찰(direct observation), 그리고 서면 문서(written documents) 등이 있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인터뷰 (structure-interview), 반 구조화 인터뷰 (unstructured-interview) 그리고 비구조화 인터뷰 (unstructured-interview)로 나뉠 수 있다(Petty et al. 2012b)[15]. 구조화 인터뷰와 반구조화 인터뷰는 심층 인터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며 특수체육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다(Hodge et al., 2019)[5]. 심층 인터뷰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관점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인터뷰의 종류는 연구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의 기간, 참가자 수, 연구자의 위치, 그리고 연구 설계에 따라 인터뷰의 종류를 선택하게 된다(Patton, 2005)[16].

구조화 인터뷰 (structured-interview) 형식은 연구자들이 이미 미리 정해진 인터뷰 질문이 있고 각 개인에게 같은 순서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Denzin & Lincoln, 2000)[6]. 구조화된 인터뷰는 좀 더 많은 양의 자료를 빨리 수집할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특히, 많은 체육 교사들의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경험과 어려움을 인터뷰할 때 이용될 수가 있다. 반 구조화 인터뷰 (unstructured-interview) 형식은 미리 질문을 만들어 인터뷰를 시작하지만, 인터뷰 도중 그리고 그 후에 인터뷰 질문을 상황에 따라 변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세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후속 질문을 할 수가 있다 (Petty et al. 2012b)[15]. 예를 들어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장애 학생이 질문에 대한 표현이 서툴면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변형하여 그 학생의 견해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Petty et al. 2012b; Turner,

2010)[15,17].

마지막으로, 비구조화 인터뷰 (unstructured-interview) 형식은 연구자가 특별한 질문을 준비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Fontana & Frey, 1994)[18]. 연구자들은 조사해야 할 특정 주제가 있으므로 참가자들과 자연스러운 대화 즉,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 (Denzin & Lincoln, 2000)[6]. 비구조화 인터뷰는 참가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그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으며 연구자와 참가자의 충분한 유대관계를 성립하는 데 바람직한 도구이다 (Fontana & Frey, 1994)[18].

직접 관찰 (direct observation) 기법은 연구자들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 참가자들의 행동과 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법이다. 연구자가 직접 보고 느끼고 듣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참가자의 행동과 대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Glesne & Peshkin, 1992)[4].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찰 기록을 좀 더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장애인 부모님의 학교 (IEP) 미팅에 연구자가 직접 참관해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관계 대화 (언어, 비언어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Patton, 1990)[13].

서면 문서(written documents)는 다른 질적 연구 (인터뷰, 직접 관찰) 기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질적 연구의 질을 향상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는 기법이다 (Petty et al. 2012b)[15]. 공공 기록(출생 기록, 사망 기록, 경찰 기록, 기관 기록, 프로그램 문서, 정부 문서) 및 개인 기록 (일기, 편지, 홈 비디오, 달력, 여행 일지)가 많이 사용된다 (Petty et al., 2012b)[15]. 글자는 책, 일기 및 저널 기사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미지에는 사진 그리고 그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Glesne & Peshkin, 1992)[4]. 서면 문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혼합 연구 설계에 자주 사용된다 (Glesne & Peshkin, 1992)[4]. 가령 장애 아동의 운동 참여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참가자들을 인터뷰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교 문서 (체육 수업의 참여 시간, 수행 능력 평가)를 함께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Glesne & Peshkin, 1992)[4].

4.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목적은 자료를 요약하고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 사이의 연결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론을 완성할 수 있다. (Petty et al.,2012b)[15].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교 분석법 (constant comparative method)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 (ethnographic analysis), 현상 학적 분석 (phenomenological analysis), 그리고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등이 있다.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해놓은 자료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지속해서 비교 그리고 대조하는 방법이다 (Boeije, 2002)[19]. 지속적인 비교 그리고 대조 방법을 통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주제의 범주를 나눌 수 있다. 수집된 개념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Boeije, 2002)[19]. 연구자는 반복하여 자료를 비교 그리고 대조하여 도출된 개념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범주화하며 범주화된 개념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를테면 자폐 아동 부모님들을 상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인터뷰 (interview narratives)를 비교 또는 분석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념과 경험을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Boeije, 2002)[19].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은 수집된 자료의 음성이나 문자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Hsieh & Shannon, 2005)[20]. 내용 분석의 예로 텍스트의 특정 패턴을 식별하고 메시지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추론하는 방법이다. 문헌이란 문자로 기록된 자료로써 사진, 방송, 그림들도 포함된다. 텍스트의 표면적 정보가 아닌 그 이면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으며 그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Hsieh & Shannon, 2005)[20]. 예를 들어, 연구원들은 장애 학생들이 인터뷰 도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복되는 단어와 인터뷰 몸짓을 식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비디오 판독법을 사용해 참여자의 특별한 인터뷰 패턴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정 텍스트 패턴을 식별한 후 연구원은 이러한 체계적인 패턴 속에서 내재한 기본적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Graneheim & Lundman, 2004)[14].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 (ethnographic analysis)의 목적은 선택된 참가자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주제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Glesne & Peshkin, 1992)[4]. 연구자가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참가자의 행동과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Morse, 1994)[21]. 연구원들은 문화적 맥락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은 인류학에서 유래되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접근 방식은 특정 관습, 전통 및 문화 등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연구자가 직접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이다 (Altheide, 1987)[22]. 보기를 들자면, 한국 통합교육의 현실을 알아보는 연구는 연구자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 학적 분석 (phenomenological analysis) 은 개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삶과 관점을 깊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Larkin et al., 2006)[23]. 한 개인이 겪는 경험일 수도 있고 한 그룹이 공통으로 겪은 사건과 사고 등을 분석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개개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에 그 사건들의 연계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개인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 (Larkin et al., 2006)[23]. 장애 학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의 목적은 수집된 자료 중에서 공통적인 주제의 분류에 목적이 있다 (Vaismoradi et al., 2013)[24].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은 주제 분석을 사용하여 기존의 자료에서 주요 주제를 식별, 분석, 그리고 구성 및 설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식별해 그것을 서술하는 데 있다. 주제 분석 방법은 연구자가 특정 이론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선택된 주제를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통합교육의 견해를 위해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했을 때 비록 장애 특성은 다르지만,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관점과 경험을 식별하고 그것들의 연구 질문에 맞게 해석 그리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Vaismoradi et al. 2013)[24].

5.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 확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타당성 확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타당성 확보는 신뢰성 (credibility), 확실성 (conformability), 의존성 (dependability), 그리고 전이성 (transfera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Leininger, 1994)[25]. 각 기준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신뢰성(credibility)은 독자가 연구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연구의 신뢰성 확보는 더욱더 중요하다 (Glaser & Strauss, 1965)[26]. 신뢰성의 확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구 기간의 연장(prolong engagement), 검토 작업 (member checking), 다각화 기법 (triangulation), 그리고 동료 검토 (peer debriefing) 등이 있다. 연구 기간의 연장 (prolong engagement) 은 연구자가 연구 기간을 연장하는 기법으로 참가자와 연구자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Lincoln & Guba, 1985)[27].

다각화 기법 (triangulation)은 연구자가 연구 자료 수집이나 분석 과정에서 복수의 원칙을 적용해 결점과 판단 오류를 완화하는 기법이다 (강유석, 노형규, 2009)[10]. 자료 다각화 (data triangulation), 조사자 다각화(investigator triangulation), 이론 다각화 (theory triangulation), 그리고 방법의 다각화 (methods triangulation)로 나눌 수 있다 (Jansick, 1994)[28]. 자료의 다각화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며 조사자 다각화는 많은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해 연구의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론의 다각화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사용하여 연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고 방법의 다각화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Jansick, 1994)[28]. 동료 검토 (peer debriefing) 는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하고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가 연구의 각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동료 검토자의 역할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정직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Lincoln & Guba, 1985)[27]. 검토 작업(member checking)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정보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Cutcliffe & McKenna, 1999)[29].

확실성(conformability)은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과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Patton, 2005)[16]. 연구자는 독자들에게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가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연구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인터뷰 기록, 관찰 기록, 비디오 녹음, 오디오 녹음, 그리고 연구 저널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 (Lincoln & Guba, 1981)[27].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해 연구자들의 관점과 편견을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존성(dependability) 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다른 연구자가 그 연구를 했을 때 같은 연구 결과를 유출할 수 있냐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외부 연구자가 연구에 따른 결정과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다. 질적 연구의 의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전반적인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Seidman, 2012)[30]. 만약에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녹음하여 인터뷰 해설자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일반화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Seidman, 2012)[30]. 또한, 인터뷰 이외에 현장 노트의 사용으로 연구의 객관적인 사실 확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연구자가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했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과정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 (Boeije, 2002) [19].

전이성(transferability)은 연구 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다시 이루어질 조건이 있냐는 문제이다. 연구의 전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참가자가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절차 등을 좀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질적 연구의 전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Morse, 1994)[21]. Slevin 와 Sines(2000)는 연구가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이 충족되면 연구의 전이성 확보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전이성은 연구의 다양한 변수 (문화, 인종, 학년, 성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31].

6. 특수체육에서 질적 연구 질의 평가 기준

국내·외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근거 기반 실무 (Evidence-based Practice, EBP)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장애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기반을 둔 교육법이 강조되고 있다(Hutzler, 2011)[32]. 미국의 예를 들면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2004) 헌법의 영향으로 한 명의 장애 학생의 나고도 없이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Hodge et al. 2019)[5]. 근거 기반 실무 그리고 교육법은 교육법의 형태, 결과 중심의 교육법, 다양한 실습 교육 등이 포함된다 (Hutzler, 2011)[32].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특수체육에서도 근거 기반 교육법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된다. 특히, 질적 연구는 특수체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성인들의 체육 또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경험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고 그것의 결과물을 특수체육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왜 (why)와 어떻게 (how)로 묻는 질문에 적절하게 답을 할 수가 있다(Hodge et al. 2019)[5]. 좀 더 깊이 있게 무슨 경험을 하였는지 또는 무슨 제약을 받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Hodge et al., 2019)[5].

많은 학자 간에서 연구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제시되고 있다(Hutzler, 2011)[32]. Reid(1993)는 연구의 질을 높이는 기준은 연구목적과 개념적 문제의 연관성, 연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통계적 방법, 참가자 및 연구 설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33]. 하지만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은 항상 논의되고 있다 (Sherrill, 1997)[34]. 왜냐면, 질적 연구는 보통 연구자의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Goodwin, 2020)[21]. 반대로 양적 연구는 통계적 수치와 연구 결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므로 질적 연구보다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Goodwin,2020)[21].Zitomer와 Goodwin(2014)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9].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질적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연구자의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9].

예를 들면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APAQ) 에서 2007 년부터 2014년까지 119개의 질적 연구가 나왔다 (Zitomer & Goodwin, 2014)[9]. 한국에서도 질적 연구는 특수체육 분야에서 양적인 측면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강유석, 노형규, 2009)[10]. 하

지만, 질적 연구가 많이 나오지만, 그동안 질적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적 연구는 사실상 역동적인 연구 과정이고 연구자의 태도와 신념이 연구에 나타나므로 그 질을 평가하는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Goodwin, 2020)[21].

최근에 APAQ 편집위원회에서는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을 내놓았다. 그것은, 연구자의 배경 설명, 연구자의 배경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 자료 수집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연구 패러다임 설명, 작문 스타일, 이전성 확보, 문헌 연구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중요도, 다른 연구의 영향력, 향후 연구에 대한 제한, 윤리적 승인, 연구자와 참가자의 관계, 서론과 결론의 연계성, 연구 방법과 연구 패러다임의 관계성, 그리고 연구목적의 달성 등이다 (Hodge et al., 2019)[5]. 또한, 몇몇 학자들이 질적 연구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Zitomer와 Goodwin(2014)은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21]. Table 1은 Zit omer와 Goodwin의 질적 연구의 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Table 1. the Guideline to Examine Qualitative Research by Zitomer and Goodwin (2014)

Quality Indicator	Criterion
Reflexivity	A reflectivity is a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that involves self-awareness of the researchers who shows honesty, and genuineness with the research procedure
Credibility	Credibility encompasses the extent to which findings represent experiences shared by participants or observed by researcher
Resonance	Resonance is the impact of a study on reader, its ability to recreate with them, expanding their appli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and the ability to transfer study findings to their contexts using providing a thick and deep description of the study
Contribution	A contribution refers to the ways in which research contributes to a deep understanding, clarify confusion, extending knowledge, and generating insight into various aspects of a phenomenon using encouraging further exploration, and the practical use of knowledge, using the creative way in the methodology
Ethics	Ethics addresses the importance of carrying out research in a respectful, humane, honest, and empathic way.
Coherence	A coherent study follows a consistent, clear, and concis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from its introduction through to its conclusion as shown achieving its purpose,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nnection between its method and theoretical and paradigmatic approach, and using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review

두 번째로, Hodge 등 (2019) 도 질적 연구의 질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확하고 명백한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연구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의 전반적인 의도와 가치가 연구 전체에서 일치하고, 연구의 방법의 질을 검토하는 기준 제시하며, 기준 문헌의 체계적인 검토, 그리고 방법론적 연구에서 질이 얕은 연구를 제외하는 것 등이다[5]. 이처럼 Zitomer와 Goodwin(2014) 와 Hodge 등(2019)은 특수체육에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지만, 사실상 초보 연구자나 독자들에게는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Carano(2014)는 특수체육에서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APAT(Adapted Physical Activity Taxonomy)를 개발했다[35]. APAT는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으로 초보 연구자나 독자들에게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쉽게 했다(Hodge et al. 2019)[5, 35] APAT는 실험 연구 (experimental/quasi-experimental designs), 단일 대상 연구 (single subject design), 상관관계 연구 (correlational design), 그리고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로 나뉜다. APAT 는 각 분야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APAT 는 파트 I (연구 강도의 질의 평가1-3)와 파트 II (APAT의 추천 A-C)로 나뉘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강도의 질의 평가 (1-3) 파트 I는 APAT의 각 영역 (도입, 방법, 결과, 토론, 참고)에 관한 정확한 설명으로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APAT는 강도 등급 (레벨 1 = 강함, 레벨 2 = 보통, 레벨 3 = 약함)으로 연구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다. Table 2는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레벨 1 : 강함).

Table 2. APAT Qualitative Research Design on the Strength of Recommendation (Level 1: strong)

Domains	Descriptions
Introduction	The clear explanation of research questions. The alignment between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research question.The application of theory and/or conceptual model. The indication of the significant of the study. The solution to the challenged are provided (e.g., supported a need of the study). The literature supports purpose and justification of the study.

Methods	The alignment between research design and research questions. The measurement of research bias (e.g., peer debriefers). The suited participants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eep descriptions of the participant. The participant criteria for the consideration of replicable. The substantiate trustworthiness for the data collection (e.g., member checking, data triangulation). The sampling procedure with a deep description (e.g., how, when, where) The description of research settings (e.g., interview place, GPE and/or APE settings). Treatment levels are explained and documented. The alignment between interview question and research questions. The accuracy of the description of data collecting measurement. The articulation of documents and artifact cited in the study.
Results	The clear description and analysis of raw data, themes (i.e., how to code data) The clear explanation of research findings in an order
Discussion	The results clearly addressed the research questions. The comparison between research findings and prior research. The presentation of limitation of the study.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and practical settings.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ported data were addressed. The possibility of the generalization across other settings. The perspectives and position of the researcher regarding study.
Reference Appendices	A completed reference as well as appendices are provided for understanding of the study

APAT의 추천 A-C 단계 분야 II는 질적 연구의 추천을 위한 단계이다. Fig. 1 APAT : Level of Recommendation은 레벨 A에서 C로의 기준을 측정하는데 적용된다. 추천 A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의 중요성 그리고 특수체육의 적용,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연구 결과와 기존 문헌의 연관성, 그리고 연구 결과가 장애 학생에게 직접적인 적용 등이다. 추천 B는 장애 학생 관련 연구이지만 연구 결과가 다양한 특수체육 현장 기반에 적용할 수 없을 때이거나 제한적 일 때이다. 추천 C는 연구 결과가 장애 학생과 관련이 없을 때이다. APAT 의 추천 단계의 적용은 Fig. 1에 나와 있다. 그리고 Table 3는 APAT를 국외 질적 논문에 적용한 예이고 Table 4는 평가의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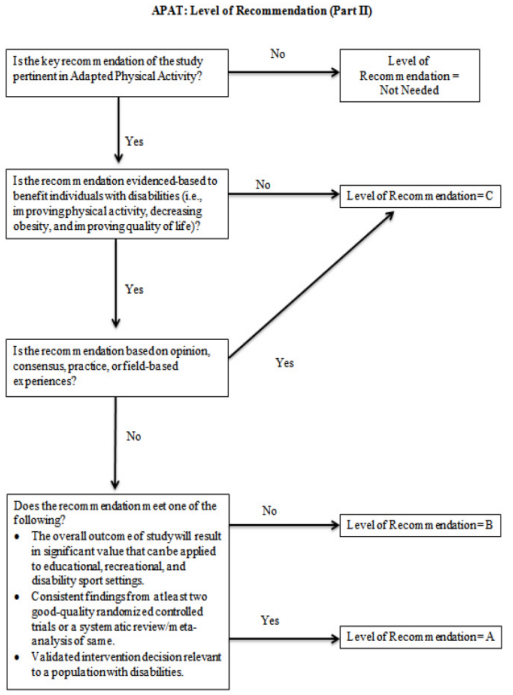

Fig. 1. APAT: Level of Recommendation(A-C)

7. 결론

특수체육에서 질적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양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의 경험과 관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됨과 동시에 질적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질적 연구자들의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질적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APAT는 질적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좀 더 실제로 질적 연구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Table 3. the Examples of Employing APAT in Qualitative Research

Author	Participants	Measure/Protocol	Outcomes	The Quality of Study (1-3)	Level of Recommendation (A-C)
Columna et al., (2008)[36]	Parents of children with congenital and/or acquired disabilities (n =10)	Interviews	Three parental themes emerged from the analysis: (a) importance placed on physical activities, (b) ongoing and frequent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c) teachers' attributes.	Strength 1	Recommendation A
Obrusnikova and Dillon (2011)[37]	GPE teachers (n = 43)	Interviews Background and elicitation questionnaires	Many challenges were reported among GPE teachers to include students with ASD, such as students' autistic behaviors and lack of supports.	1	1
Obrusnikova and Miccinello (2012)[38]	Parents with ASD (n = 103)	Focused-group interview, online questionnaires	Parental perspectives of children with ASD were still limited toward participation in PA.	1	1
Healy et al. (2013)[39]	Children with ASD (n = 12)	Interviews	Individual challenges were reported, such as, difficulty task, lack of supports from teachers, and peers.	2	A
An and Hodge (2013)[40]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 = 8)	Interviews	Three themes emerged from thematic analysis: being an advocate for my child, understanding the big picture, and collaborative partnerships undeveloped in GPE.	1	A
Chaapel et al., (2013)[41]	Hispanic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n = 11)	Interviews	Three themes emerged from the data: (a) qualified APE professionals, (b) challenges for the family, and (c) normalcy.	1	A

Table 4. APAT guideline for the emerging scholars

Author	Results	The Quality of Study (1-3) Strength 1	Level of Recommendation (A-C) Recommendation A
An & Hodge (2013) [40]	Three themes emerged from thematic analysis: being an advocate for my child, understanding the big picture, and collaborative partnerships undeveloped in GPE. Parents took on the role of advocates for their children to succeed in school and emphasize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school staffs. Parents value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also physical education. However, expectations of parents are hindered without support from GPE teachers	Introduction The clear explanation of parental perspectives toward teach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physical education. The literature supported the importance of the study.	The support from PE and APE teachers The importance of parental perspectives in PE settings. The practical implication for PE and APE teachers to corroborate with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thods The discriptions of study procedure, the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methods.	
		Results The clear explanations of study results (the perspectives of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garding physical education.	
		Discussion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The practical recommendation in PE and APE settings.	

현실적으로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이해와 다양한 연구 방법의 습득 없이는 질이 높은 연구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oodwin 2020; Hodge et al., 2019; Zitomer, & Goodwin, 2014)[5- 9]. 따라서,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이해와 연구 방법론의 습득이 필요하다 (강유석, 노형규, 2009)[10]. 또한, 질적 연구를 공부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의 파악이 요구된다(이인경, 2019)[42]. 그것이 기본이 될 때 질적 연구를 하는 과정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이인경, 2019)[42]. 그리고 그 결과물은 특수체육 현장에 있는 장애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REFERENCES

[1] J. R. Fraenkel, N. E. Wallen & H. H. Hyun. (2012).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 (8th ed.). New York, NY: McGraw Hill.

[2] N. J. Petty, O. P. Thomson & G. Stew. (2012a). Ready for a paradigm shift? Part 1: Introducing the philosophy of qualitative research. *Manual Therapy, 17(4),* 267-274. DOI : 10.1016/j.math.2012.03.006

[3] W. A. Pitney & J. Parker. (2009). *Qualitative research in physical activity and the health professions*. Human Kinetics.

[4] C. Glesne & A. Peshkin. (1992).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p. 6). White Plains, NY: Longman.

[5] S. R. Hodge, L. Columna, B. Myers & D. A. Streete. (2019). *The Role of Qualitative Research in Adapted Physical Activity. Enhancing Healthcare and Rehabilitation: The Impact of Qualitative Research,* 13-19.

[6] D. L. Altheide. (1987). Reflections: Ethnographic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Sociology, 10(1),* 65-77.

[7] M. Crotty.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eaning and perspective in the research process.* Sage Publications.

[8] K. J. Oh. (2019). Practical application of tradition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special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pecial Sports, 29(3),* 95-112.

[9] M. R. Zitomer & D. Goodwin. (2014). Gauging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in adapted physical activit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31(3),* 193-218. DOI : 10.1123/apaq.2013-0084

[10] Y. S. Kang & Y. S. Noh. (2009). A Study on the Trend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Special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Sports, 17(3),* 285-310.

[11] M. B. Miles & A. M. Huberman. (1984). Drawing valid meaning from qualitative data: Toward a shared craft. *Educational Researcher,* 20-30.

[12] T. A. Schwandt. (2000). Three epistemological stances for qualitative inquiry.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 189-213.

[13] M. Q. Patton.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14] U. H. Graneheim & B. Lundman.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4(2),* 105-112. DOI : 10.1016/j.nedt.2003.10.001

[15] N. J. Petty, O. P. Thomson & G. Stew. (2012b). Ready for a paradigm shift? Part 2: Introduc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and methods. *Manual Therapy, 17(5),* 378-384. DOI : 10.1016/j.math.2012.03.004

[16] M. Q. Patton. (2005). *Qualitative research.* John Wiley & Sons, Ltd.

[17] D. W. Turner III. (2010). Qualitative interview design: A practical guide for novice investigators. *The Qualitative Report, 15(3),* 754-760.

[18] A. Fontana & J. Frey. (1994). *The Art of Science :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61-376.

[19] H. Boeije. (2002). A purposeful approach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in the analysis qualitative interviews. *Quality and Quantity, 36(4),* 391-409. DOI : 10.1023/A:1020909529486

[20] H. F. Hsieh & S. E. Shannon.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DOI : 10.1177/1049732305276687

[21] J. M. Morse. (Ed.). (1994).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22]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20 U.S.C. §1112, 2011.

[23] M. Larkin, S. Watts & E. Clifton. (2006). Giving voice and making sense i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102-120. DOI : 10.1191/1478088706qp062oa

[24] M. Vaismoradi, H. Turunen & T. Bondas. (2013).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Implications for conducting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Nursing & Health Sciences, 15(3),* 398-405. DOI : 10.1111/nhs.12048

[25] M. Leininger. (1994). *Evaluation criteria and critique of qualitative research studies*. In J. M. Morse (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95-115). Thousand Oaks, CA: Sage.

[26] B. G. Glaser & A. L. Strauss. (1965).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Social Problems, 12(4)*, 436-445.

[27]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28] V. J. Jansick. (1994). T*he dance of qualitative research desig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09-219.

[30] J. R. Cutcliffe & H. P. McKenna. (1999). Establishing the credibility of qualitative research findings: the plot thicken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0(2),* 374-380.

[31] I. Seidman. (2012).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Teachers college press.

[32] Y. S. Hutzler. (2011).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 A challenge to the development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8(3),* 189-209. DOI : 10.1123/APAQ.28.3.189

[33] G. Reid. (1993). Motor behavior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Linking research and practice.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0(4),* 359-370.

[34] C. Sherrill. (1997). Past, present, future.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4(1),* 1-7.

[35] C. Carano. (2014). Development of a research taxonomy for adapted physical activity (Order No. 3672826).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A&I.

[36] L. Columna, J. Pyfer, T. Senne, L. Velez, N. Bridenthrall & M. Y. Canabal. (2008). Parental expectations of adapted physical educators: A Hispanic perspective.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5(3),* 228-246.

[37] I. Obrusnikova & S. R. Dillon. (2011). Challenging situations when teachi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general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8(2),* 113-131. DOI : 10.1123/APAQ.28.2.113

[38] I. Obrusnikova & D. L. Miccinello. (2012). Parent perceptions of factors influencing after-school physical activity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9(1),* 63-80.

[39] S. Healy, R. Msetfi & S. Gallagher. (2013). 'Happy and a bit Nervous': The experiences of children with autism in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Learning Disabilities, 41(3),* 222-228. DOI : 10.1111/bld.12053

[40] J. An & S. R. Hodge. (2013). Exploring the meaning of parental involvement in physic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30(2),* 147-163.

[41] H. Chaapel, L. Columna, R. Lytle & J. E. Bailey. (2013). Parental expectations about adapted physical education servic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7(3),* 186-196.

[42] I. K. Lee. (2006). Beginning qualitative research quenc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Athletics, 14(1),* 61-88.

이 서 희(Seo Hee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 학사)
· 2018년 2월 : Texas Woman's University (체육학 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특수체육, 특수교육
· E-Mail : apejanet@gmail.com